

# 도시재생 발굴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 전주시, '사람·생태·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 만들기' 주제 8점 우수작 발표

### 최우수상

전북대 경영학과 황이경 외 2인 '서학동 예술마을 MIC 프로젝트'

전주시는 '사람·생태·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한 2016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총 8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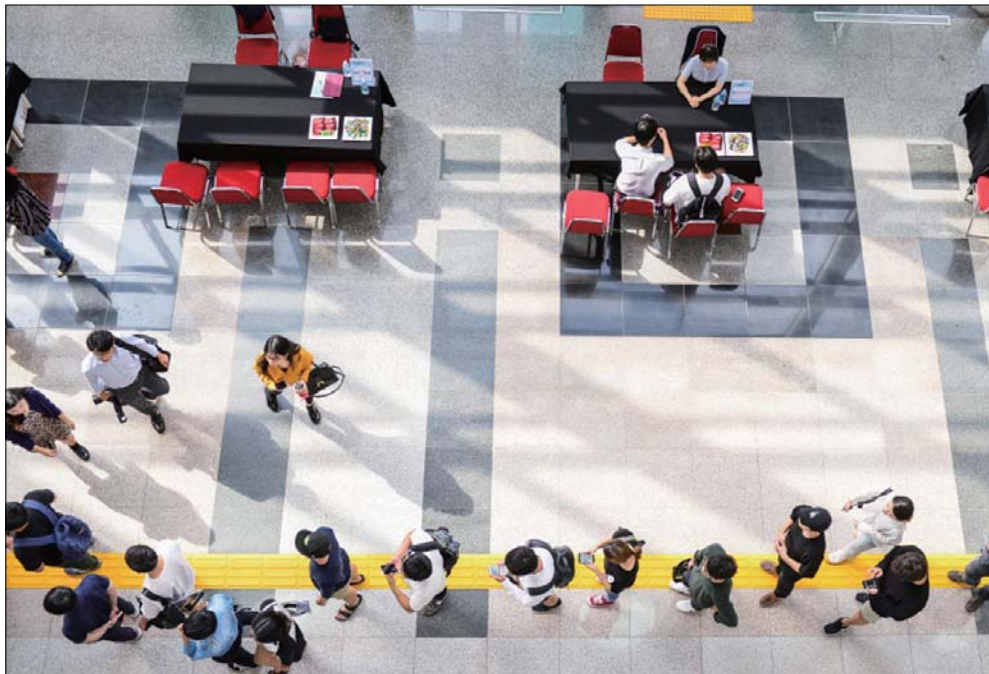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시민들의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전주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도 깊은 작품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등 8점의 우수작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황이경 외 2인의 '서학동 예술마을 MIC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서학동 예술마을의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 파악하고, 이를 만들고(Make), 알리고(Introduce), 연결하고(Connect)라는 컨셉으로 창작스튜디오와 서학동민의 고유아트상품개발 등 참신하고 창의적인 재생방안이 제시돼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단계적인 선미촌 재생방안과 성매매 업소 폐쇄 후 선미촌 공간의 재구성 방안을 제시한 기억발



채용 설명회 입장하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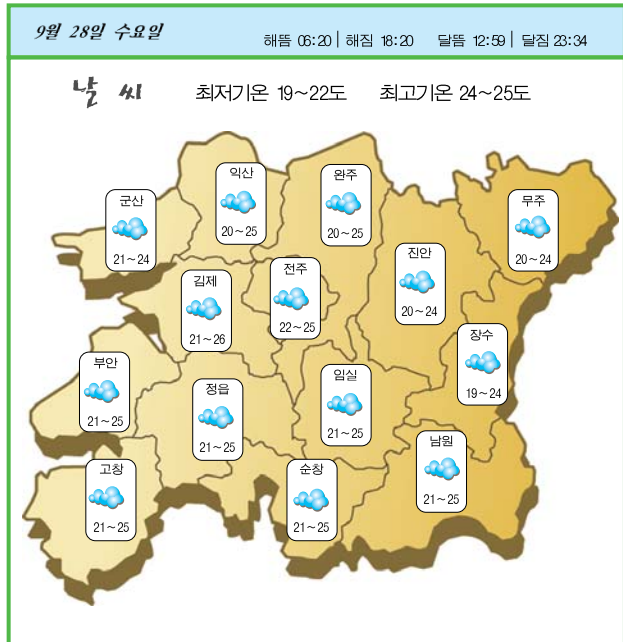
27일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주최한 '2016 능력중심 채용 설명회'에 학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전연주소 하나운 연구원 외 1인이 출품한 '기억과 경험의 전이를 통한 선미촌 재구성'과 송암마을의 도로명인 '비탈치는 길'과 불담, 골목길, 공원 등을 활용해 비탈길을 조성하는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윤소원 외 3인의 '풍(風)경: 비탈부는 경관을 담은 마을'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주역 문화와 자연 소통의 품로 △옛 물길 따라 되살아나 △살아있는 전주 풍남문 △청춘에찬 △새로운 시작(Begin Again) 등 총 5개 출품작이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손영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은 시민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입상작 선정시 아이디어 기획 당시 현황조사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디어 공모전과 같은 시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 엠블럼·캐치프레이즈 공모

2017년 개교 70주년을 맞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총 상금 700만원 규모의 엠블럼과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전북대 개교 70주년 이미지와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표현하는 디자인을 담은 엠블럼과 개교 70주년의 의미와 비전을 20자 내외로 표현한 캐치프레이즈 등 두 종류다. 전북대는 내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전북대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공모 분야별 응모 작품은 개인 또

는 단체별로 2건 이내 제출하면 되고, 전국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엠블럼 분야 최우수상에 300만원, 우수상 2편에 각 100만원 캐치프레이즈 분야 최우수상에 100만원, 우수상 2편에 각 50만원 등 모두 7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전북대 관계자는 "최종 당선작은 내달 28일 전북대 홈페이지에 발표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교육부, '명장공방' 지원고교

# 전북기계공고 등 17개 학교 선정

교육부는 산업 현장의 '명장(名匠)'이 직접 특성고교와 마이스터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명장공방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북기계공고를 포함한 17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 학교는 각 분야의 명장들이 특성고교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 시간을 이용해 우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지난해 선정됐던 부산관광고와 울산마이스터고 창원기계공고 등 10개 학교가 평가를 거쳐 재선정됐으며 전북기계공고와 수원농생명과학고 나주공업고 부산공업고 현대공업고 부천공업고 천안제일고 등 7

개 학교가 새로 선정됐다. 지원 직종도 지난해 13개에서 올해는 화훼디자인과 농업, 보석 및 금속 가공을 추가해 총 16개로 늘어났다.

전북기계공고와 같이 새로 선정된 학교에는 5,000만원이 시설 조성비 등으로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술전수를 통해 뿌리산업 및 전통산업 분야의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2년간 참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 제고, 실제 제품 생산과 판매, 창업 아이템 발표회 개최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형기자

## 전북교육청, 전국 FFK 전진대회 전주생명과학고서 개최

(한국미래농부)

### 미래 농·생명산업 분야 우수 인재 육성 등 발전 모델 제시

### 4개 분야 19개 종목 시도별 예선 거친 대표 840명 참가

전북도교육청은 미래 농업과 농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2016 제45년차 전국FFK(Future Farmers of Korea) 전진대회를 27일부터 3일간 전주생명과학고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FFK전진대회는 미래 농·생명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과 학생들의 지도성·과학성·협동성 함양 및 중등 농·생명과학교육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총 4개 분야 19개 종목에 시도별 예

선을 거친 대표 840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전공경진 분야(6종목)에 가장 많은 548명이 참가하며, 과제이수발표 분야(6종목) 88명, 실무능력경진 분야(6종목) 108명, FFK골든벨 분야 98명이 각각 참가한다.

첫 날인 27일 경진의 날에 과제이수 발표, 실무능력경진과 전공경진(이론 시험)이 열리며, 공동학술대회와 FFK 예술행사가 개최된다.

/고민형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내진 보강공사 38억 투입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일부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내진 보강 공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8억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건물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남초 교사동 건물 등 총 10개 학교 건물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가 이뤄진다.

올해 현재까지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했거나 착수하는 학교는 전주남초와 전주 숭빛중, 전주 효정중, 군산동초, 이리동산초 등이다.

/고민형기자

2016 Heungbu Festival  
우애·나눔·보은·행운

# 흥부제

제24회

2016.10.7(금)~9(일)

사랑의 광장 일원

주최: 남원시 · 주관: 흥부제전위원회 · 후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시 농·축협

개막식 10.7(금) 19시 / 무형유산 한마당 10.8(토)14시, 사랑의 광장